



가와모토 아이이치로씨

1958년 3월 25일생
 미나마타병환자가족. 아버지는 잇소미나마타병환 자연맹위원장인 가와모토 데루오씨(1999년 사망) 극증(劇症)으로 사망된 할아버지 일, 어릴적 생활, 지원자로서 미나마타병환자를 리드한 아버지와 그 운동을 지지해 온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함.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로써 간호시설을 경영. 2008년 5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시 데쓰키 재주

미나마타병은 병이 아닙니다. 잇소가 일으킨 상해살인사건입니다. 이 잇소와 싸워 온 사람이 바로 저의 아버지 가와모토 데루오입니다.

일본에는 일본국 헌법 25 조와 13 조에 의해 사람은 누구라도 생존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나마타병환자들은 그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잇소는 메틸수은은 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장폐수와 함께 흘려버렸습니다. 그 점이 저의 아버지가 제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라누이(不知火) 해는 매우 풍요로운 바다였습니다. 어부들은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아, 평온하면서 풍부한 살림을 해왔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극증형의 미나마타병으로 사망됐지만,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도 심한 증상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안 아버지는, 퇴근하면 제가 어릴적에 탔던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환자들의 집 한 채 한 채 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잇소를 상대로 자주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 좀 다녀올께"하고는 도쿄 본사앞에 앉아서 시위하느라고 1년 9개월 동안 집에 안 돌아왔습니다.

미나마타병은 원래, 일가 단란히 모여앉는 식탁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해 하기 위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일이 증세를 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67 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의라는 일마다 의지를 표명하는 것 밖에 없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제가 현재하는 일은 재활의료입니다. 인간다운 회복을 위한 곳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아버지가 한 일도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